

성서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에 대한 연구

류 순 하

- I. 서 론
- II. 한국교회 기복신앙 이해와 그 요인 분석
 - 1.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현실
 - 2. 한국인의 전통적 기복신앙 이해
 - 3.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요인 분석
 - 1) 샤머니즘의 영향
 - 2) 교회성장을 위한 기복신앙의 강조
 - 3) 사회적 여건의 영향
 - 4) 기복신앙의 요인으로서의 부흥회 및 삼박자 구원
 - 2. 축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 1) 물질적 현세적 축복
 - 2) 종교적, 영적 축복
 - (1) 오경과 시편에 나타난 영적 종교적 축복
 - (2) 제의와 축복
 - (3) 산상수훈
 - (4) 찬양과 감사로서의 축복
 - 3.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 III. 축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 1. 축복에 대한 어원적 고찰
- I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무병장수와 부, 가족의 안녕과 평안, 자손의 번영을 바란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샤머니즘이 성행하며 현세적 물질적인 복을 위하여 굿을 하고 묘지를 잘 선정하려고 싸우며 복 받기 위하여 점을 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기복신앙의 요소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의 심성에 자리잡고 있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복신앙적 요소가 교회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상이다. 선교제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에는 물질만능적 사고와 양적 성장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복 받기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더 나아가서는 성서의 축복이 마치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 뿐인양 가르쳐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며 그 과제를 해결해

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심차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치료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복신앙적 요소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기복신앙의 만연현상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을 알아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기복신앙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과 적극적 사고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세째는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복신앙이 과연 바른 것인지에 대한 성서적 조명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복신앙에 대한 성서적 치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질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런 기복신앙에 영향을 준 샤머니즘의 기복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형성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제Ⅲ장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축복 사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보던 축복개념을 통시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Ⅲ장에서 고찰한 성서의 축복과 기복신앙과의 차이점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적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본 논문을 마치려 한다.

Ⅱ. 한국교회 기복신앙 이해와 그 요인 분석

1.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현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이러한 서글픈 현상은 어떤 연유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복에 대한 신학적 개념작업의 부재이며 일부 부흥사나 기도원 등이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샤머니즘적 기복사상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 축복만이 성서적 축복이라고 하는 복개념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예수를 믿는 것도 현재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이고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서 서광선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형태는 축복을 받기 위한 물질적 축복을 위한 것”¹⁾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 서광선, “한국 그리스도교인의 의식구조” 신학사상 제 41 권(1983, 여름), p.268.

그래서 주일날 바치는 헌금이나 십일조를 바치는 것 역시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위한 것이다. 문상희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는 이유 중 “복받기 위해서”가 63.5%이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2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한국인들의 복에 대한 간구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²⁾ 심지어 헌금을 물질적 축복을 위한 “조건적 투자”³⁾ 내지는 “상리적축복공식(商利的祝福公式)”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의 이러한 헌금의 타산적 계산을 한완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금을 많이 낼수록 은근한 공리적 이해타산은 더욱 강할지도 모른다. 즉, 내가 수입의 십의일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는 계산 밑에서 십일조를 바친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계산에 넣고 또 그것을 믿고 헌금한다. 이같은 공리적(攻利的) 자세에 문제가 있다. 만일 반대급부가 없으면 그러한 헌금은 헌신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짝처럼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계기가 되기 쉽다.⁵⁾

둘째로, 샤머니즘적 질병치유의 문제이다. 일부 한국교회는 부흥회와 기도만 통하여 병을 고치려 하며 안수하여 병 고치는 일만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병고치는 일을 자랑하며 병원을 대치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교회가 있다.

이들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살펴 보면 보통 교회의 예배 분위기와는 다르다. 빠른 찬송과 박수소리, 몸을 상하좌우로 흔들며 얼굴표정은 황홀과 감격으로 그리고 울분과 하소연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가히 샤머니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찬송시간 뿐 아니라 설교시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윤태영은 설교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설교자의 설교내용은 간단하게 외쳐진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쫓!”하면 교인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외친다. 목사는 회중 속을 다니면서 교인들의 가슴,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치면서 “쫓, 병마야 물러가라!”고 한다. 그리고는 “이제 병마가 다 물러 갔으니 믿어!” 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교인들은 치유의 축복을 받은 듯 할렐루야를 연발한다.⁶⁾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교회의 치유현상은 성령운동을 오해한 것이며 축복이 극히 현세적이고 육적인 차원으로 발전된 까닭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이다.

2) 윤태영, “교회주변의 왜곡된 기복신앙에 대한 성서적 비판” 풀빛목회, 제 45 회(1984.10), pp. 51-52.

3) 서광선, loc. cit.

4)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Ⅱ) 신학지남(1981, 봄), p.54.

5) 한완상,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울:전망사, 1978), pp.107-108.

6) 윤태영, op. cit., p.51.

세제로, 축복의 근원에 대한 오해이다. 성경을 보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⁷⁾ 그러나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목사나 부흥사가 축복의 수여자이며 질병의 치료자이다. 이들은 자신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자신있게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축복을 받으라고 외친다. 이들은 “샤머니즘의 제사(祭司)처럼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장래를 점치는 사람”⁸⁾으로 변해 버렸고 교인들은 목사나 부흥사가 축복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좀더 밝힐 것이지만 축복의 참 근원은 하나님이지, 한 인간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수여하고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한국인의 전통적 기복신앙 이해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 요소인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요소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샤머니즘적 요소와 결부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한국인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샤머니즘적 기복사상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샤머니즘의 축복관은 한마디로 기복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새해들어 사람들은 서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한다. 이것은 복받기를 비는 것이다. 많은 생필품에 “복”자가 새겨져 있다. “세시(歲時)풍속의 하나에 복조리가 있다. 설달 그믐날 저문 뒤에 복조리 파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데…… 집집마다 사들여 붉은 실로 매어서 벽에 걸어 둔다. 복조리나 갈퀴를 사서 문 위나 벽에 걸어두는 것은 그 해의 복을 끊어 모아 건진다는 뜻이라고 한다.”⁹⁾ 이렇게 볼 때 “복이란 바로 삶의 내용이고 목표와 의미이다.”¹⁰⁾

그러면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이란 “수명을 단축하는 질병과 가난의 극치인 기근과 불만과 파괴를 몰고 오는 난리 곧 삼재(화재, 수재, 풍제)를 피하고 그와는 반대로 연명장수(延命長壽), 부귀영화(富貴榮華), 평강안녕(平康安寧)의 3복을 누리는 것”¹¹⁾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에 대한 이해는 무당굿에 잘 나타나 있

7) 축복은 보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물론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다른 인간들이 축복을 선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도 언제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cf. 창 12:1-3, 창 1:28, 9:1, 22:16-18, 삿 6:12, 민 6:22-27, 신 5:11-12, 7:13, 28:3-6, 마 25:34, 갈 3:8-9, 행 3:25-26, 히 6:13-15.

8)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서울: 양서각, 1984), p.63.

9) 이시현, 장수근, 이광규 공저, 한국 민속학 개설, (서울: 보성문화사, 1982), p.211.

10) 유동식, “토속신앙에 나타난 복의 이해”, 기독교사상(1977.1), p.34.

11) Ibid., p. 35.

다. 이 곳에는 축복과 행운을 비는 재수 곳, 안택 곳, 천신 곳 등이 있으며 이런 기복제(祈福祭)들은 봄, 가을에 제 신령에게 식재초복(息災超福)을 축원하는 것이다.¹²⁾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한 마디로 현세적 물질적 축복으로서 수복(壽福)¹³⁾ 과 재복(財福)¹⁴⁾ 과 평강¹⁵⁾ 이라 하겠다.

또한 샤머니즘에는 인생의 모든 질병과 재앙을 가져 온다는 악령귀신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가 있다.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치병기도(治病祈禱)는 무당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며, 고래로 무당이 의료기관 노릇을 해왔다.¹⁶⁾ 이들은 질병을 악신의 범접(犯接)이나 신령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었다.¹⁷⁾ 그래서 굿을 하여 악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건짐을 받아 무병장수하려 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기복 굿의 핵심은 신병과 재액을 물리치고 부자되어 장수하며 평안히 살도록 하자는 데 있다.”¹⁸⁾ 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기복신앙을 위하여 살펴 본 것이 있는데 풍수신앙으로 인한 묘지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초기부터 풍수신앙이 널리 퍼지고 묘지를 잘 씌므로 인하여 구복(求福)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묘를 파내고 남에게 매매하는 일도 있고 시체를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남의 묘지를 평지화하여 전토(田土)로 만들거나 분실(噴塋)내의 수목을 도벌하거나, 방화하거나 하는 등의 범죄가 또한 잇따라 나왔다.”¹⁹⁾ 이러한 이유는 생기왕성한 장소를 찾아서 부모를 묻으면 “자손의 번식, 명예, 부, 지위의 획득을 위한 원천적 근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²⁰⁾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전통적인 무속신앙 민간 신앙은

12)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1), p.296.

13) 목숨을 주관하는 제석신이라는 신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보면 수복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짧은 명 길게 잇고 길고 긴 명 서리담아 우리 목숨에 돌곤 달고 바위 목숨에 쇠곤 달아 여든에 티를 달게 도와주신 성존불사”(Ibid., p.301. 참조).

14) 재복선연대감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보자. “먹고남겨 도와주고 쓰고남겨 도와주는 몸주대감 보물대감, 재물대감 아니시냐”(Ibid., p.302).

15) 성주풀이에 보면 가내평안을 기원하는 구절이 있다. “이 가정이 부하도록 소원성취 하도록 가정에 탈 없도록 잡귀잡신 범접 못하도록 부디 거두어 주사이다(Ibid., p.302).

16)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서울: 기독교서회, 1969), p.31.

17) 유동식, 한국교회의 역사와 구조, p.303. 보통 통구스족이 이해하는 병의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혼의 기능마비, 악령이 사람 밖에 있으면서 장애를 주는 것,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애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곳으로서 손님 곳, 마아 곳, 배송(拜送) 곳 등이며 구병(求病)전통은 처용랑 설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8) Ibid., p.302.

19) 이상일 외 6인 공저, 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양영각, 1973), p.180. cf.), Char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se, 정기수역, 조선교회사서론, (서울: 탐구당, 1977), pp.234-237.

20) Ibid., p.179.

기복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복 자체가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자신의 안녕과 장수, 물질적 축복이었으며 자손의 번영과 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현실주의적이요 물질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 밝힌대로 물질적인 축복과 자손의 번영, 안녕과 장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강조하고 미래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²¹⁾

3.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요인 분석

1) 샤머니즘의 영향

이처럼 민속신앙이 한국인의 심성과 생활에 깊이 스며 있을 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기독교를 가지고 온 선교사들의 선교는 식민지유형의 선교로서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강력한 서구화의 정치경제적 압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²²⁾ 이들은 대체로 선교지의 기존문화를 수용하는 카톨릭을 “이교도와와의 결탁”이라고 비난 하였고²³⁾ 기존종교를 무시하고 한국인의 심성 깊숙히 스며 있는 샤머니즘이 몇년 안가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²⁴⁾ 그러나 오히려 결과를 보면 그 반대로 샤머니즘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더욱 빨리 전파될 수 있었고 그 샤머니즘과 결합하여 여러 종교현상들을 산출해 내고 있다. 그래서 쉬어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국에 들어 왔을 때 거기에는 강하고 조직적인 종교적 반대세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샤머니즘 혹은 물활론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를 갖추어 놓았던 것이다…… 수백년 동안 한국은 초자연적 존재를 매개해 주는 샤머니즘적 노력에 의해서 종교적 바탕이 준비되어 왔으며, 기독교의 씨가 이 비옥하고 잘 손질된 옥토에 떨어졌다.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신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²⁵⁾

초기 선교사들의 배경과 신학을 연구한 민경배도 선교사들을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신앙이 한국 본래의 정신적 유형과 상통하는 데가 많았다고 적고 있다.²⁶⁾ 문상희도 샤머니즘이 교

21) 유동식은 우리 고유한 말에 과거나 현재를 의미하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있어도 미래를 표시하는 말은 없다고 한다. 내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한자어에서 온 외래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pp.35-36).

22) J. Dillinger, C.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p. 167

23) H.G. Underwood, "Roman on the foreign Mission Field," Alliance of the Reformed Churches, 1892, Toronto, pp. 409-411.

24) H.G. Underwood, "The Religion of the East Asia," (New York: MacMillan, 1910), pp. 98-101.

25)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이승인 역, 한국교회 성장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pp.29-30.

2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149.

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귀신민듯 예수를 믿고 무당이 푸닥거리하듯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있다고 한국교회를 진단한다.²⁷⁾ 그리고 유동식 또한 샤머니즘이 한국기독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것을 네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 세계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외래종교의 수용태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현실주의적인 재화초복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타신앙이며 넷째는 새로운 존재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이 정체되어 전통주의와 보수주의로 기울었다는 것이다.²⁸⁾ 종합하여 볼 때 샤머니즘은 한국기독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끼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앞에서 밝힌 교회의 물질적 추구 경향, 사면적 치유문제와 그 다음 장에서 밝힌 샤머니즘의 기복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샤머니즘의 기복사상은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현실지향적인 무교의 영향으로 기독교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신앙은 현세적인 재앙을 떨하고 목사가 현세적 축복만을 빌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출석도 복을 달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도의 내용도 간구하는 것이 열이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 밖에 안된다.²⁹⁾ 이러한 샤머니즘의 영향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흥종교의 창궐이다. 이들은 거의가 사면적, 퇴행적 혼합주의의 소산이다.³⁰⁾ 이와같은 샤머니즘의 복합 현상이 최근 한국교회 안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교인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집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다가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일부 부흥회는 샤머니즘화되어 가고 있다. 앞에서 밝힌대로, 이상한 몸짓, 괴성, 울부짖음, 몸을 뒤흔들어대는 것이 모든 것들이 샤먼의 굿거리와 그리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다. 부흥회 뿐 아니라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는 굿터가 되고 있고 목회자는 무당화된 곳도 없지 않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가 마치 영험있는 무당인양 재난을 추방하고 복을 빌기를 원한다. 또한 일정한 자기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전속무당인 단골무당이 한 달에 몇 차례씩 자기 단골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같이 교역자의 심방을 고대한다.³¹⁾ 그리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는 “복음이나, 샤머니즘이나”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³²⁾

27) 문상희, “샤머니즘과 기독교”, 세계와 선교 제 35 집(1974.6), p.26.

28)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pp.37-38.

29) 한완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5.

30) 문상희, “기독교나 샤머니즘이나”, 기독교보 1978.8.15.

31) 박장권, “전이해로서의 샤머니즘 연구”, 기독교 선교의 토착화 연구(서울:혜문사, 1973), p.73.

32) 문상희, op, cit.

2) 교회성장을 위한 기복신앙의 강조

개신교 전래 1세기가 지나면서 개신교는 많은 성장을 했다. 물론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교회는 성장하였겠지만 그 성장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가 교회 내의 기복신앙의 만연이라는 것이다. 최근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서의 성공 기준을 큰 교회당 건축, 많은 교인 수, 고액의 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성공 개념의 현실을 박근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을 물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교인의 수, 건물의 크기, 예산의 규모, 교회 버스의 유무... 이런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세속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정당화 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다.³³⁾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축복 받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며, 기복적인 축복관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병고침을 받고 잘 살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은 교회성장을 위해 기복신앙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그렇치 않아도 기복적 종교심이 강한 한국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든 물질 축복 강조의 설교는 교회를 양적으로 크게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³⁴⁾ 그래서 한완상은 해방 이후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기복제화(祈福除禍)의 무당 종교적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³⁵⁾ 1970년대에 이르러 성령치료 등의 기복적 신앙을 강조하는 순복음을 교회와 같은 중파의 교세가 크게 늘어났음을 볼 때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현실에 처한 한국교회는 교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적이고, 기복적이며 성령 중심의 교회로 변하기 시작하였고³⁷⁾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행복을 위한 처방과 병 낫는 마술로서 팔아 먹는 상업술”³⁸⁾로 생각하게 되었다. 박근원은 교회 성장을 위해 교역자들은 축복을 팔았고 교인들은 그러한 기복신앙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축복의 아스피린을 파는 약장사로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는 돌팔이 무당으로 전락한 교역자들이 활무하는 현실이 교회성장의 뒷골목에서 자주 눈에 띄는 모습들이다. 이런 복음의 곡

33) 박근원, 한국교회성숙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62.

34) 윤태영, op, cit., p 56.

35) 한완상,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인들의 가치관”,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p. 124.

36) 김병서, “한국교회의 종교성과 계층성 연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4), p.112.

37) Ibid.

38) 박근원, op. cit., p. 48.

해는 교인들에게 아스피린 중독에 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³⁹⁾

는 것이다. 결국 교회성장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형태의 메시지와 성령 운동을 도입했거나 성도들의 기복적 경향을 방관함으로써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유지하려 하였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인들에 팽배해 있는 기복신앙은 교회의 급성장을 위한 목회자들의 신유 및 물질적 축복의 강조가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여건의 영향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정부 수립, 한국동란, 정치부패 및 학생혁명, 그로 인한 정권교체, 군부 구태타 등 많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삶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불안정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⁴⁰⁾ 더구나 기성종교는 신사참배 문제와 신학노선의 문제로 분열되어 많은 교인들은 기성교회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때를 기해 신흥종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흥종교들의 여러 특징이 있겠으나 그중의 하나가 현세 이익적 신앙과 관련되어⁴¹⁾ 교인들의 기복적 신앙을 조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특징이라면 GNP의 상승과 함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던 시대 즉 경제성장의 시대였다.⁴²⁾ 이 때 또한 문제는 있었다. 물량적 가치관과 상대적 빈곤감간의 문제였다. 이것으로 인해 결국 초조감과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정신적 의거치를 찾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⁴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성교회에서 보다 기도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⁴⁴⁾ 몇몇을 제외한 많은 기도원들이 헌금을 강조하며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⁴⁵⁾ 이들은 부흥사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고 이들의 메시지의 내용도 주로 기복적인 내용이었다. 현재 부흥사들의 중심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축복강조가 제 1위라는 것이다.⁴⁶⁾ 이런 것을 볼 때 기도

39) Ibid.

40) 한완상, op. cit., p. 177.

41)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p.237.

42) Ibid., pp.238-239.

43) Ibid., pp.239-240.

44) 1945년 이전 2개 45-55년에 2개 등 4개 뿐이던 기도원이 56-65년 혼란기에 49개가 발생하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66-75년 사이에는 무려 146개의 기도원이 설립된 것만을 보아도 60년대 이후의 사회변화가 얼마나 종교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

45) 기도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쪼먹는 예수무당들의 푸닥거리”, 현대종교(1982.10), pp. 169-193, 탁명환, “한국 기도원 운동의 공과” 기독교사상(1974.9), pp. 50-59 참조.

46) 하해룡, “한국기독교의 부흥사 신학에 관한 한 연구”, 박창환, 주선에 회갑기념논문집(서울: 논문편찬위원회, 1984), p.557.

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주로 기복적인 것, 현세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도원을 찾는 교인들의 신앙에 기복신앙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종교현상이 기복신앙을 형성하는데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이제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찾아볼 것이다. 1960 년대에 이르러 사회의 격변과 산업화 추구는 경제적 성장과 물량적 가치관을 심기에 충분했고 이런 갑작스런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소외현상과 물화(物化)현상 및 편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불안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게 되고 현실을 보상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병서는,

이같이 각박한 사회조건 밑에서 경직된 사회구조에 따라 살아야만 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보다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체험을 더 추구하게 된다. 더구나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현실에서 상대적 약탈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상황에서 어려운 생활조건을 해결하려 할 때 기복적 신앙 양태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⁴⁷⁾

라고 말한다. 이처럼 기복신앙은 샤머니즘의 영향이나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자들의 영향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기복신앙의 요인으로서 부흥회 및 삼박자축복

부흥회나 부흥사들이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았음을 앞에서 잠시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흥회나 부흥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도 대단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흥사들은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지나친 현금강조로 인하여 물의를 빚었다. 윤태영은 지나친 현금강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부흥사가 다 눈을 감게하고 “100만원 낼 사람?”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장내는 아무 반응이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후진 동네로구만”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 다시 부흥사가 없느냐고 묻는다. 그때 한 처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예 100만원 한 사람 작정했읍니다. 또 없읍니까? 장로님들 중에 누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장로님 한분이 일어났다. “예, XX장로님이 100만원 하신답니다. 또 없읍니까?” “그 다음 50만원...” 마치 경매장의 풍경이었다.⁴⁸⁾

47) 김병서, op. cit., p. 133 .

48) 윤태영, op.cit., p.52.

이것을 볼 때 부흥사들은 신도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을 위협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굶을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 무당이 제주(祭主)에게 위협하여 돈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당이 제주를 위협하는 장면을 김태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떻게 굶하는 거야? 무엇이 없네. 할돈 없다 하여도 너희 년놈들은 잘도 헤떡더라. 할것은 다 하더라. 정성 다하면 공든담이 무너질까봐 패심해, 패심해 필요들 없어, 두고 보아라 5,6월에 또 올테니... 보아라 그래 복을 주는데 요꼴이나? ⁴⁹⁾

부흥사들의 헌금강조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얼마를 바치면 얼마만큼의 물질적 현재적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진학할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가 상급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병든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먼저 복을 받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한다. 한 부흥사의 설교 내용을 보자.

하나님 아버지 손에는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고 굳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 여러분도 주님이 축복하사 무엇을 하든지 현재보다 100배 얻어서 큰 재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여성인데도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1억원을 헌금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축복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심고 거둘 때는 많이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⁵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바치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강단에서 거액의 봉투를 이름 불러 박수치며 칭찬하고 소액의 헌금은 봉투를 찢으며 이런 헌금이 어디 있느냐고 저주하는 일부 부흥사들이 있다.” ⁵¹⁾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을 마치 기독교의 축복관인양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물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과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람이 바로 순복음중앙교회의 조용기 목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삼박자원리와 적극적 사고방식을 메시지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황금주의와 소비성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한 1960년 후반 한국교인들의 구미를 맞출 수 있었다. 또한 60년대 전반에 일제시대와 한국동란이 가져온 처참한 환경과 절망의 외침들에 깊이 오염된

49) 김태곤, 황천 무가연구(서울: 창문사, 1966) p.213.

50) 임영재, “받은 증거있는 신앙생활”, 복음의 종언(1979.11.11 설교), p.4.

51) 김의환, op.cit., p.51.

한국교회는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몰아부치고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라고 외쳐댔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설교내용에 한국교인들은 식상해 있었다.⁵²⁾ 이러한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조용기 목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하면 된다고 가르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되며, 그 축복은 곧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이라고 가르쳤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요한 3서 1장2절을 중심으로하는 것으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이 세가지이다. 이 삼박자 구원을 바로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 그는 그의 목회생활과 설교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⁵³⁾ 조용기 목사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범사에 잘된다는 말씀은 개인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다.⁵⁴⁾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범사에 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⁵⁵⁾ 영혼이 잘되면 당연히 범사에 잘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⁵⁶⁾ 그러면 그가 말하는 범사는 무엇인가?

범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녀교육문제, 직장문제, 사업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생활의 안정과 기쁨의 문제 등등 이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⁵⁷⁾

결국 그가 말하는 축복관 즉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현세적 물질적인 축복을 말한다. 결국 그의 논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려면 반드시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하며 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이 물질 세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고 기쁨지며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⁵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하겠습니까. 결코 가난하고 헐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

52) 김태복, “삼박자 축복 원리는 무엇인가?” 풀빛목회 제 16호(1981.1), p.35, (PP.34-41)

53) 조용기, 성공적 교회성장 열쇠(서울:영산출판사, 1977), p.70.

54) 서광선, “한국교회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의 신학적 이해”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서울:크리스찬아카데미, 1986), p.57.

55) 조용기, 삼박자 구원(서울:영산출판사, 1986), p.240.

56) Ibid., p.107.

57) Ibid., p.110.

58) Ibid., p.113.

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이 모든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⁵⁹⁾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건마저도 물질적 축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범사에 잘될 수 밖에 없고 또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요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결과”⁶¹⁾이며 나아가서는 “예수를 모독하는 것”⁶²⁾이 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결과”⁶³⁾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성서적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생각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부요를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요를 바라고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부요를 누리고 있는 기독교 선진국가는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⁴⁾

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근본적으로 인간심리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큰 힘에 의지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그러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과 반대되는 그의 성서적 축복관은 어떠한가?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려한다.

축복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받아 그들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사방에는 물질적인 부요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 부요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직 부요한 축복과 행복만이 있었습니다.⁶⁶⁾

59) 조용기, 위대한 환상(서울:서울서적, 1986), p.159.

60) 조용기, 삼박자 구원, p.145.

61) Ibid.

62) Ibid., p.138.

63) Ibid.

64) 조용기, 위대한 환상, p.159.

65) 조용기, 5 중복음과 삼박자축복(서울:서울서적, 1987), p.164.

66) Ibid.

그가 분류한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차이점은 결국 축복신앙의 근원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인간 심리적인 측면이냐의 차이이다. 그가 분류한 기복신앙이나 성서적 축복신앙이나 둘다 똑같이 축복 자체를 물질적 내지는 현세적 축복이라고 보는데는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축복신앙은 인간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범사에 잘되는 길 즉 축복받는 길을 살펴보면 이것을 비판하기로 한다.

그에 의하면 축복받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십일조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 사고이다. 십일조는 현재의 선악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⁶⁷⁾ 에덴동산의 부요한 상태를 회복하려면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쳐야 하는 것이 바로 십일조이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부요하기 위해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⁶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물질축복을 얻기 위한 세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으면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⁶⁹⁾ 둘째는 투자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투자하면 풍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윤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 주신다는 법칙이다.⁷⁰⁾ 셋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돌아 온다는 산울림의 법칙이다.⁷¹⁾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이런 법칙을 가르쳐 준다고 그는 말한다.⁷²⁾ 이 비결을 실천할 때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듯 부요와 번영의 축복이 임할 것”⁷³⁾ 이라고 한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십일조를 바치면, 그리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오게되며 내가 바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이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축복의 근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그의 논조로 보면 물질이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복신앙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고 결국 헌금이나 십일조 등을 조건적 투자로 변질되게끔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 적극적 사고이다. 그는 범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

67) 조용기, 삼박자 구원, p.148.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용기에 의하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바로 십일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68) Ibid., p.155.

69) Ibid., pp.164-166.

70) Ibid., pp.166-169.

71) Ibid., pp.169-172.

72) Ibid., p.170.

73) Ibid., p.171.

기하면서 다섯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목표를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하며, 세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롱한 성공의 꿈을 마음 속에 그려야 할 뿐 아니라, 네째는 탐욕을 제거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하며, 다섯째는 미리 성공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그는 또한 교역자들이 “밤낮으로 교회성장에 대한 가능성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⁷⁵⁾ 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리고 “거듭난 사고 방식”⁷⁶⁾이라는 설교에서도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응답받은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으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사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요, 적극적인 사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으려면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하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긍정적 신념을 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그의 논조에 의하면 축복의 조건은 심리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 해줄만한 구절이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의지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상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상력은 곧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며 생각입니다. ...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그 목표와 우리 사이는 서서히 가까워져서 서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⁷⁷⁾

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말을 빌려 볼때 그의 축복은 결코 심리적 차원과 무관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잘 다스려 불안과 좌절감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축복이 임한다고 본 것 같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예수님이 피흘리시고 죽으신만큼 값있는 존재이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은 꼭 성공한다.”⁷⁸⁾ 하고 말하라고 권고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존하여 축복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암시⁷⁹⁾를 자기에게 주어 자신의 신념으로 축복을 이루려는 것이다. 한완상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만다는 사회학의 상황규정론과

74) Ibid., pp.235-236.

75) 조용기, 성공적 교회 성장 열쇠, p.29.

76) 조용기, 1977년 11월 6일자 설교 카세트.

77) 조용기, 삼박자 구원, p.230.

78) Ibid., p.234.

79) 그는 스스로 자기 암시의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의사들의 말을 빌려서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기 암시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라는 구절도 자기 암시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비슷하다고 한다.⁸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적 욕구만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적극적 주체의식을 통한 세운 정체를 영혼의 축복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락과 건강 및 물질의 축복까지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론과 연결되고 있다.”⁸¹⁾ 결국 성서의 축복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보면 그의 축복의 출발은 인간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축복사상이 자기가 비판하는 기복사상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용기의 이러한 삼박자 축복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삼박자 축복은 결국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 십자가와 의인의 고난을 무시하고 있고 현재의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민게 하는 기복적신앙을 조장시키고 말았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십자가 지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충만 받으려는 것도 오직 현세의 축복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되어지게 된다. 분명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회중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다.”⁸²⁾ 고 판단할 수 있다. 순복음중앙교회 교인의 의식구조를 보면 더욱 뚜렷이 이것을 알 수 있다. 김덕환의 조사에 따르면⁸³⁾ 순복음중앙교회 교인들은 “축복받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37.6%에 해당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가 30.6%나 되어 현세적인 안녕과 무병을 위한 것이 68.2%에 이르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하여”는 1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순복음중앙교회에 출석한 후에 일어난 신앙의 변화를 보면 “전보다 잘살게 되었다.”고 응답한 교인수가 무려 41.2%나 된다는 것이다. 또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가 26.9%로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교인들에게 침투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여 본다면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삼박자 구원이며, 그것은 현세적 물질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교인들에게 기복신앙을 심어주고 잘못된 축복관을 성서적인 축복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80) 한완상, “교회의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 1986), p.202. 상황규정론은 상황을 사실로 규정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되고 만다는 명제에 기초한다. 규정하는 행위는 주관적 행위요, 행위자가 사물과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의미부여에 따라 객관적 실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81) Ibid., p.203.

82) 김태복, op.cit., p.39.

83) 김덕환, 조용기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서울: 한국광보개발원, 1981), p.94.

Ⅲ. 축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1. 축복에 대한 어원적 고찰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서에는 여럿 있다. 첫째는 brk이다⁸⁴⁾ 이 말은 동사로서 “무릎을 꿇다, 경배를 드리다, 찬양하다, 축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⁸⁵⁾ 단순한 인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⁸⁶⁾ 그것이 수동형(ברוך, barukh)이 될 때는 영적 힘으로 채워진 상태를 의미한다.⁸⁷⁾

또 하나의 단어가 아슈레('ashre)인데 “행복하다, 질서있게 하다, 바르게 하다”의 뜻이다.⁸⁸⁾ 바루크가 죽장같은 매개를 거쳐서 실현되는 축복이라면 아슈레는 축복받을 자에게 매개 없이 선언되는 것을 말한다.⁸⁹⁾

신약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개념은 울로게오(eulogeo)와 마카리오스(makar-ios) 두 가지가 있다. “울로게오”는 구약의 brk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의 뜻이다.⁹⁰⁾ 또한 마카리오스는⁹¹⁾ “복된, 축복된, 행운의, 행복한” 의미로서 주로 종교적 의미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산상수훈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다. 그리고 신약 곳곳에서 신령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⁹²⁾

2. 축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2장에서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복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교회는 축복을 주로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한국 심성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임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축복신앙의 부재 혹은 교회성장을 위한 무절제한 조장 혹은 잘못된 기도원운동, 부흥운동 때문에 기복신앙

84) 이 개념의 자세한 것을 위해서는 G.J.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s*, Vol. II, tr. by John T. Willis, pp. 379-308 참조. (이하 TDOT로 약칭)

85) F. Brown, S.R. Driver, C.A.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53), pp. 138-139.

86) 김인환 역, *성서신학사전*(광주: 광주카톨릭대학, 1984), p.588.

87) L. Kohler and 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J. Brill, 1958), pp.153f.

88) TDOT, p.445.

89) 전경연, *예수의 교훈과 윤리*(서울: 향린사, 1985), p.88.

90) G.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pp. 754-764. 참조. (이하 TDNT로 약칭)

91) TDNT, Vol. IV, pp.362-370 참조.

92) 마 5:3-11, 11:6, 13:16, 눅 11:28, 요 20:29, 계 14:13, 20:6, 약 1:25, 벧전 3:14, 요 13:17 참조.

이 한국교회를 잠식했다는 것도 고찰하였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적 현실을 보면서 던져야 할 물음은 과연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축복관이 성서적인 축복관인가? 축복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안녕과 부와 무병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서에서 축복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서 곳곳에 축복이라는 말들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축복하셨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는 축복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잘 나타난다.⁹³⁾ 시편기자는 서두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고, 마태 역시 예수의 8복을 기술하고 있으며, 기타 서신에서도 축복의 개념들이 나타나 있다. 예수의 지상 마지막 행위 역시 축복이었다. (눅 24:50-51) 이처럼 성서는 복에 대하여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 복을 고찰해 봄으로서 한국교회의 왜곡된 축복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물질적, 현세적 축복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물질적, 현세적 축복이 곳곳에 나타난다. 그래서 폰 라트는 구약성서의 축복개념은 다분히 물질적이라고 말했던 것이다.⁹⁴⁾ 첫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7-28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또한 이스라엘이 큰 족속을 이룬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축복을 많이 주셨으므로 사람이나 짐승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기본적인 의미인 생산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⁵⁾

또 하나의 축복은 땅의 기름짐으로 인한 소산의 풍성함을 의미한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가운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49:11-12) 라는 구절은 소산의 풍성함과 우양의 풍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함에 있어서나 (49:22),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93) 축복을 위한 투쟁은 야곱과 에서의 기사에서 잘 밝혀진다.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나기 위한 싸움, 축복 쟁취를 위한 야곱의 간계, 라반과 야곱과의 충돌, 압박강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 등, 이러한 기사들은 이스라엘 생활에서 축복이 얼마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Clavs Westermann, Tausend Jahre und ein Tag: Einführung in die Bibel 손규태, 김윤옥 공역, 천년과 하루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PP. 38-50 참조

94) G. Von Rad, Genesis (London: SCM Press, 1961), p. 155.

95) Clavs Vestermann,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장일선 역. 성서와 축복(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 39. 이와관련되는 오경의 구절로는 창 17:16, 20, 22:17, 26:24, 신 7:14

(창 27:27-28), 모세가 요셉지파에게 축복할 때(신 33:13-17) 이러한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으로 인해 이삭은 거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창 26:12) 삼년 쓰기에 풍족하도록(레 25:21) 소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적과 싸워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는데 있다. 야곱은 유다에게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창 49:8) 라고 축복하며 요셉에게 또한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 49:23-24)라고 축복한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원수를 격퇴시키는 능력이며 그 원수들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한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축복이란 사람의 번식력을 의미하고 땅의 소산의 풍성함과 우양의 풍성함을 말하며 적으로부터의 안식과 평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물질적 축복의 삼요소라고 하였다.⁹⁶⁾

여기서 좀 더 살펴야 할 것은 신명기서의 축복의 개념이다. 신명기가 말하는 축복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이며 현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⁹⁷⁾ 지금까지 말한것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장수의 축복을 말한다는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4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5:33)

어미를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22:7)

둘째는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준 약속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네 여호와께서는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6:10)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8:1)

이 구절들을 보면 축복은 곧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11:29)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하나님

96) J. Pedersen, *Israel, its Life and Culture*, vol. I-I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p. 212.

97) C. Westermann, *op. cit.*, p. 76.

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성취되고 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5:11-12 참조)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스터만은 보고 있다.⁹⁸⁾

세째로, 신명기의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신명기의 모든 축복의 말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와 도를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질을 바치거나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시편에서도 역시 물질적인 축복이 언급되어 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 65:9-1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을 볼찌어다. (128:3-6)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물질적 축복, 자손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는다 할 때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2) 종교적 영적 축복

(1) 오경과 시편에 나타난 영적·종교적 축복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구약의 축복은 곧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축복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던 구절들을 다시 살펴보면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2-3)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축복이 물질적이거나 현세적 의미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약화되어 있

98) *ibid.*, p. 75.

다. 볼프는 이 구절을 야훼신학자의 케리그마라고 보면서 야웨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 그 축복의 결과로 3절 후반절에서 모든 땅의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⁹⁹⁾ 결국 여기서의 축복은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후손들에게 가서야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카 롯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연고 때문이었다.¹⁰⁰⁾ 또한 이 구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1) 축복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되었고 (2) 그 축복의 결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원인이 되며 (3) 결국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점강형식(Steigerungstornel)으로 되어 있다.¹⁰¹⁾

이러한 축복의 형식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축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 27:27-29)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우선 물질적 축복을 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빌고 있다. 이것도 점강형식으로서 물질적 축복에서 모든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다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이 옮겨가고 있다.

좀더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많이 띠고 있는 민수기 6:23의 축복을 살펴보면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는 물질적 축복개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평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축복의 성격을 보면 종교적인 축복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 평강(Shalom)은 빌립보서 4:7의 하나님의 평강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²⁾

한편 시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적축복이 잘 드러난다. 시편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얻

99) 창 19:29 Walter Brueggemann and Hans Walter Wolff. *The Vitality of the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p. 135.

100) 창 19:29

101) A. Murtonsn, “The use and Meaning of the words I barek and braka in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um*, Vol. 9, (1959), p. 159.

102) *Ibid.*, p.162. 이외에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축복, 즉 종교적 측면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있다. 창 2:3, 출 20:11, 32:29, 신 11:27, 삼상 9:13, 사 45:3 등 참조.

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2) 라고 선포한다. 여기서는 죄사함과 용서의 축복이다.

그리고 2:12절과 34:8절, 84:12절의 축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을 것이며 부족함이 없을 뿐아니라 이들은 부끄러움과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축복의 차원은 결코 물질적 차원이 아닌 신앙적 차원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

(2) 제의와 축복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성전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전은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을 수여하는 장소이고¹⁰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축복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이므로 백성에 대한 축복은 제의적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¹⁰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는 축복의 원천이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삶을 찾았으며 이 삶은 신탁, 제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¹⁰⁵⁾

제의 속에 나타난 축복을 보면 언제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아론의 축도(민 6:24-26)에서도 축복의 선포나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제사장은 단지 중재자일 뿐이다. “구약성서 축복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축복과 역사적 경험과의 관계이다. 야웨의 축복은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의 행위에 대한 기본적 표현이다.”¹⁰⁶⁾ 그래서 베스터만은 “축복의 수여란 것이 이스라엘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또 이 축복의 수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¹⁰⁷⁾ 고 한다.

(3)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축복이 현세적 물질적 축복만 있는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적 축복이 보다 더 중요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여기 산상수훈에서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받는 보상은 아니다. 감추어진 미래를 계시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며 현실을 초월하거나 부정하거나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다. 주어진 현실을 타개해

103) 왕상 8. 시 65. 115:12-15, 128:5, 129:8, 132 편

104) TDOT, Vol. II, p. 307.

105) TDOT, Vol. II, p. 757.

106) George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 (Nashville,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p. 447.

107) Claus westermann, op. cit., p. 64.

나가는 신앙적 행동이 강력하게 요청된다.”¹⁰⁸ 는 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수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가난의 의미는 정신적·물질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있는 하염없이 작은 인간존재의 겸허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¹⁰⁹ 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작은 자요 겸손한 자”¹¹⁰ 이다.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애통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즉 겸손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복을 얻는다. 여기서 땅은 지상의 소유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주리고 목마르며 자비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처럼 신앙수훈을 살펴볼 때 이 세상의 물질적 현세적 축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오는 축복이며 그나마 축복도 이 세상에서의 부와 장수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축복이다. 이 하늘나라의 축복은 하르낙이 말한대로 종교적 축복¹¹¹ 이지 기복신앙적 축복이 아니다.

3) 찬양과 감사로서의 축복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의 표현은 대체로 찬양과 감사¹¹² 로 나타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대상 29:10)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멜기세덱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창 14:20)

라고 외친다. 출애굽기 18:10에도 보면 이드로가 출애굽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¹¹³ 여호수아 22:33에는 평화를 보존함이 감사와 찬양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다니엘 2:19

108) 김철손, “예수의 축복”, 기독교 사상 제 223 호 (1977, 1), p.25 (pp.24-33)

109) Ibid, p. 28.

110) 전경연, op.cit., p.105.

111) A. Harnack, What is charistanty (New York: Harper & Row, 1957), pp. 62ff.

112) 축복을 의미하는 brk(ברך) 나 evlogia(εὐλογία) 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brk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brk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나타난다.

113) 이외에도 신 33:20, 삼하 18:28, 22:47, 시 18:47, 16:7, 26:12, 21:22, 34:2, 63:5, 66:8, 68:20, 96:2, 103:1ff, 124:6, 144:1, 룻 4:4, 왕상 1:48, 5:21, 대하 2:11, 등 참조

이하의 찬송은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대한 찬송이며 이사야 66:3의 “우상을 찬송함”은 제의적 찬양¹¹⁴⁾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⁵⁾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도 후대에 이르러서는 찬양이 단순히 개인적 찬양 뿐만 아니라 성전 예식의 관행이 되었다.¹¹⁶⁾ 그러므로 야웨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종교적 관례이며 자기의 전체 삶이 창조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과 감사와 희망의 표현을 발견할 수 없었다.¹¹⁷⁾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가랴 역시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눅 1:64), 시므온이 아기예수를 팔에 안고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눅 2:28)

결국 축복은 찬양과 감사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이해와는 아주 다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거의 없고 거의 달라는 기도 뿐이다. 하나님은 물질적 축복을 주셔야 좋은 하나님이고 주지 않으면 헌금이나 출석의 부족이라고 몰아 버린다.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여건과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축복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 가인의 범죄, 노아 홍수전의 범죄, 인간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등 인류의 원역사는 죄로 점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택하여 인류를 구원할 서장을 만들어 놓았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고 약속하시고 있다. 그래서 불프는 인류의 구원 즉 구속사는 바로 축복의 역사라고 말한다.¹¹⁸⁾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다른 족장들에게 다시 확인되며¹¹⁹⁾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구속사 속에 속속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는 오경의 처음과 끝의 책이 축복을 가장 잘 닦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아서도 구속사와 축복은 밀접히

114) 66 장 3절 전체를 보면 “어린양으로 제사드리는 것”과 “분향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보아 우상을 찬송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상을 찬송함을 제의적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

115) TDOT., p. 292.

116) Ibid., p. 293

117) TDOT., p. 758

118) Hans W. Wolff, Wegweisung: Gottes wirken im Alten Testament,

이양구 역,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 86.

119) 창 26:2-4, 28:13-14, 48:15-16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출애굽기 3:7-8 절에 기록된 출애굽의 약속은 구원의 선포이며 여기에 축복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다.¹²¹⁾ 또한 제 2 이사야에서도 축복의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 선포에 첨가되어 있다. (사 54-55) 이 부분은 미래의 축복된 상태가 중심 주제로 되어 있으며 그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지배적이다.¹²²⁾ 후기 예언서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구원의 의미로 축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원한 구원의 대표적 구절은 이사야 65:20-23 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영원한 구원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서 성취된다고 볼 때 이 구절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의 축복을 영원 구원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신약의 축복이해를 살펴보자. 신약기자들은 축복을 결코 구약의 축복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약속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있다.¹²³⁾ 또한 에베소서 1:3 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서술하고 있고 로마서 15:29 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고 함으로써 축복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며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구원역사의 완성이다.”¹²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 3:13-14)

결국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을 속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이 구원사역을 통하여 약속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며 구원 활동으로서 그 축복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¹²⁵⁾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축복의 종말론적 구원의 측면이다. 왜냐하면 성서에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으로서 성취된 측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축복이라고 하는 차원과 함께 축복의 개념이 구원의 장래 성취를 묘사하는 언어와 함께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

120) Claus Westermann, op. cit., p. 55.

121) Ibid., p. 60.

122) Ibid.

123) 행 3:25-26, 갈 3:8-9, 13-14, 히 6:13-15.

124) Claus Westermann, op.cit., p. 122.

125) 갈 3:8-9

다. 산상수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종말론적 차원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니엘 12:12 절은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65 장 17-25 절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의 축복을 서술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34 에서도 하늘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 들이 묘사되고 있다.

요약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볼때 신구약 성서의 주된 축복개념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구원론적 입장에서 본, 구속사 속에 나타난 구원으로서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현세적 축복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은 성서의 거대한 구속사 속의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을 전체처럼 파악한 잘못된 축복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축복을 목사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비한 요인을 가진, 다시 말하면 병을 잘 치료하고 인수하여 축복을 주는 그러한 목사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는 교인의 수가 날로 성장하였다. 또한 부흥사나 일부 목사들은 축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축복 받으라”는 축복의 선언을 남발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면 다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강단에서 외쳐댔다. 이러한 모습들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기복적 심성을 가진 한국교인들의 선호를 충족시키려 일부러 오용했거나 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축복의 수여자는 누구이며 축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이다. 성경의 거의 전체가 축복의 수여자나 근원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매개자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창 12:1-3) 그리고 인간이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에게 행한 이삭의 축복도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다.(창 27:27-39) 야곱에게 받은 요셉의 축복도 야곱의 전능자의 손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제의적 선포에서도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7)라고 하여 축복의 근원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있다. 족장들이나, 모

세나, 제사장들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인간 중재자”¹²⁶⁾였을 뿐이다. 더구나 물질적 축복의 대표적 구절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8 장의 축복도 무조건 받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현금을 많이 내거나 물질로 봉사해야만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구사(驅使) 하시는데 자유로웠고 …… 축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¹²⁷⁾

더 나아가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으로 본다면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구약의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축복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한다. (3:8-9)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나(히 6:13-15) 사도행전 기자도(행 3:25-26) 마찬가지다.

또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며 칭의라고 했을 때 축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예수를 묘사하고 있고(막 9:13-16)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고 전한다.(눅 24:50-51)이 사실에 대해 베스터만은

예수가 축복을 베푸는 모든 구절에서 그 축복개념은 구약성서와 유대교 전통과 동일한 것이다. ... 개개 사건의 중요 강조점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점이다.¹²⁸⁾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축복의 근원은 나 자신의 신념이나 조건적 물질이나 부흥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그래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쁨이 찬송을 받으실찌어다.”(1:21)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생각지 않는 데서 문제는 발생한다. 물질을 많이 바치면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혹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은 축복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받은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시간을, 노력을 투자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욥을 본다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성서에 나타난 축복개념을 살펴 보았다. 여러가지 축복이 있겠으나 신구약 성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축복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126) A. Murtonern, op. cit., p. 163.

127) Claus Westermann, op. cit., p. 98.

128) Ibid., p. 138.

에서 축복을 이해해야지 물질적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식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약전반에 나타난 물질적 축복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김의환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속에서 유다의 줄기를 좇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계시의 방법을 그 수용수준에 따라 적용을 달리 했다.”¹²⁹⁾고 한다.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을 가르칠 때 지상적, 초보적, 물질적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구약적 표현이요 신약적 축복의 초보적 표현이라는 것이다.¹³⁰⁾ 어쨌든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며 그러므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축복은 인간의 어떤 조건적 투자에 관계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는 축복의 전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신앙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는 현실을 조장하였고 이런 연유로 하여 교인들은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선호하여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물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축복받기 위하여 십일조를 바치고, 물질적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우선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이다. 이 샤머니즘과 물질을 강조하고 현세적 안녕과 무병을 주장하는 기복신앙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 급성장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목회자들은 교인수의 급증에 신경쓰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고난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교인들의 기호를 자극할 수 있는 기복적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회적 여건도 무시못할 영향으로 드러남을 보았다. 전쟁과 굶주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절망적인 심판을 가르치는 설교보다 희망을 주는 설교가 한국교인들에게는 필요하였다. 이런 여건속에서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잘 살수 있다는 계시지가 주도하기 시작했고 60년대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속에서 적극적 사고방식, 기복적 신앙이 이에 편승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부흥사들이나

129)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11) 신학지남(1981. 가을 겨울호), p.135.

130) Ibid.

일부 급성장한 교회가 교인들의 기복신앙을 부채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바른 축복관,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 3장에서 성서가 주장하는 축복관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구약성서에 물질적 축복만 있지 않음을 보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독교적으로, 구원론적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른 축복관임을 고찰하여 보았다. 따라서 성서의 축복관이 교인들의 심성에 자리잡고 있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과는 다른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복신앙은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세적인 축복인 반면 성서의 축복사상은 역사성과 미래성을 띠고 있다. 둘째, 기복신앙에 있어서의 축복의 내용이 무병, 건강, 자손의 번영, 물질적 부인 반면 성서의 축복 내용은 구원이며 창의이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죄를 사하심 등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의 물질적 축복은 거대한 구원역사의 한 장면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 뿐이다. 세째로 기복신앙은 많이 바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다는 조건적 축복이지만 성서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물질의 다·소에 관계없이 축복하실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째, 기복신앙에서의 복은 철저히 개인적 차원이다. 물론 가정의 안녕을 이야기하나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 오히려 나 개인의 부와 안녕을 위해서는 남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공동체성이 결여된 축복이다. 그러나 성서에 나타난 축복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제사때 성전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되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에게 축사하셨다. 이것을 볼때 기복신앙이 개인주의적이며, 개인 구복적이라면 성서의 축복은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기복신앙은 현세적이며 물질적 차원이며 조건적 투자를 통한 획득이기 때문에 그 받은 재물은 곧 나의 것이며 나의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축복사상은 다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인간은 다만 선한 관리자이어야 하며 나의 것을 남을 위해 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볼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첫째, 혼합주의 배제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샤머니즘을 이단으로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국 전통적 모든 풍습마저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 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야웨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으면서 그곳의 풍습을 야웨신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수용한 것을 표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샤머니즘적 요소와 기독교 사상의 혼재현상을 볼 수 있다. 축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일부 교회에서는 기복사상이 성서의 축복관인양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철저히 가려내어 기복신앙의 공해현상을 척결해야 한다.

둘째, 부흥회나 기도원 운동이 기복신앙의 요소가 되고 부흥사들의 메시지가 기복신앙의 내

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 이들 운동에 대한 신학적 재고 작업과 함께 교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선 목회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하여 부흥회를 개최한다면 이것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부흥회는 교회의 숫적 부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회개운동과 성경연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또한 일선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왜 기도원을 더 선호하는가를 살펴서 그들의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상담목회를 통하여 해결해 줄수 있어야 한다. 세제, 교회나 교역자 자체가 물량주의적 사고와 숫적 성공기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목회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복신앙에 오염될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에서는 양적인 성장이 성공기준으로 판단되고 가시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것으로 보는 사고가 사라져야 한다. 그럴때 기복신앙은 조금씩이나마 한국교회에서 희석되어갈 것이다.

네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신앙의 재정립이다. 앞에서 본대로 한국교회의 기복신앙 형성요인이 잘못된 축복관에 있다고 한다면 보다 바른 축복 신앙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결코 물질적, 현세적 축복만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잘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예수 안에서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사고도 위험한 사고이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신념의 확신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만족도를 기독교의 축복의 성취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신념으로 인하여 물질적 욕구를 성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닌 것이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 받는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즉, 축복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부흥사나 목사들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기복신앙의 배제를 위해서는 철저한 축복신앙의 재정립에 있다. 그럴때 한국교회는 사면이 증적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보다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도 강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용의 고백적 차원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Botterweck, G.J. and Ringgren, 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 II. tr. by John T. Willis.
- Brown, F: Driver, S. R: Briggs, C.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53.
- Brueggemann, W. and Wolff, H.W.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Buttrick, G.A.,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 Nashville,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 Dallet, Charles, *Historie de L'eglise de coree* 정기수 역, 조선교회사 서론. 서울: 탐구당, 1977.
- Dillinger, J. and Weleh, C. *Protestant Christiani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 Harnack, A. *What is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 Kittel, G.,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IV. Grands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 Köhler, L. and Baumgartner, W.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J. Brill, 1958.
- Murtonen, A. "The Use and Meaning of the Words I barek and b raka in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 Vol. 9 (1959). pp. 159-177.
- Pedersen, J. *Israel: its Life and Culture*, Vol. I-I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 Shearer, R.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이승인 역, 한국교회 성장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 Underwood, H.G. *Romanism on the foreign Mission Field*. Alliance of the Reformed Churches, 1892, Toronto.
- _____ *The Religion of the East Asia*. New York: MacMillan, 1910.
- von Rad, G. *Genesis*. London: SCM Press, 1961.
- Westermann, Claus.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장일선 역, 성서와 축복.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_____ *Tausend Jahre und ein Tag: Einführung in die Bible*. 손규태, 김윤옥 공역. 천년과 하루.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Wolff, H.W. *Hegweisung: Gotteswirken in Alten Testament*. 이양구 역.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양서각, 1984.
- 김덕환, 조용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서울: 한국광고개발원, 1981.
- 김병서, “한국교회의 종교성과 계층성 연구”.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pp.103 ~ 169.
-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I), 신학지남, (1981년 봄), pp. 44 ~ 67.
- _____, “성경적 축복관”(II), 신학지남, (1981년 가을, 겨울), pp. 131 ~ 173.
- 김인환편역, 성서신학사전, 광주: 카톨릭대학, 1984.
- 김철손, “예수의 축복,” 기독교사상, 제 223 호 (1977년 1월), pp. 24 ~ 33.
- 김태근, 황천무가연구, 서울: 창문사, 1966.
- 김태복, “삼박자 축복원리란 무엇인가” 풀빛목회, 제 16 호 (1981년 1월), pp. 34 ~ 41.
- 문상희, “샤마니즘과 기독교” 세계와 선교, 제 35 집 (1974년 6월), pp. 19 ~ 27.
- _____, “기독교냐 샤마니즘이냐” 기독교공보, (1978년 8월 15일).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박근원, 한국교회성숙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박장균, “전이해로서의 샤마니즘연구” 기독교선교의 토착화 연구, 서울: 해문사, 1973.
- 서광선, “한국그리스도 교인의 의식구조” 신학사상, 제 41 권 (1983년 여름), pp.245-269.
- _____, “한국교회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의 신학적 이해” 한국교회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 1986. pp.23 ~ 90.
- 유동식, “토속신앙에 나타난 복의 이해” 기독교사상, (1977년 1월), pp. 34 ~ 39.
- _____,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 학교출판부, 1981.
- _____,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기독교서회, 1969.
- 윤태영, “교회주변의 왜곡된 기복신앙에 대한 성서적 비판” 풀빛목회, 제 45 호 (1984년 10월), pp. 48 ~ 57.
- 이사현, 장수근, 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보성문화사, 1982.
- 이상일외, 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양영각, 1973.
- 임영재, “받은증거있는 생활” 복음의 증언, (1979년 11월)
- 전경연, 예수의 교훈과 윤리, 서울: 향린사, 1985.
- 조용기, 성공적 교회성장 열쇠, 서울: 영산출판사, 1977.
- _____, 삼박자 구원, 서울: 서울서적, 1986.
- _____, 위대한 환상, 서울: 서울서적, 1986.
- _____, 5 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서울: 서울서적, 1987.
- 탁명환, “한국기도원 운동의 공과” 기독교사상, (1974년 9월), pp. 50 ~ 59.

- 하해룡, “한국기독교의 부흥사신학에 관한 한연구” 박창환 주선에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논문편찬위원회, 1984. pp. 549 ~ 586.
- 한완상,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인들의 가치관” 한국근대화와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pp. 121 ~ 156.
- _____, “교회의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 1986. pp. 165 ~ 231.
- _____,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서울: 전망사, 1978.
- _____,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ABSTRACT

A STUDY OF THE CONCEPT OF BLESSING IN THE BIBL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over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concept of blessing. Koreans have traditionally aspired to be blessed with good health and wealth. They have also wished for peace in the family and for prosperity for their descendants, for their mentality is quite, though not absolutely, affected by the Shamanistic view of blessing.

However, the trouble is that this Shamanistic view is sweeping through the Korean Church. Christianity has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since its introduction into Korea. As a result, the idea has come into the Korean church that material growth and an emphasis on wealth take precedence over qualitative growth. Christians go to church and hope to receive blessing and good health. This is because they misunderstand the concept of blessing in the Bible.

Korean Christians think of material, earthly blessing as biblical blessing. The idea that they can become rich if they believe in Jesus Christ comes to have dominion over them. They also regard faith in Jesus as a way to material blessing, and offering as a conditional investment. Another misunderstanding is one regarding the root of blessing. Simply stated, they think that God doesn't possess the sovereignty of blessing; rather the pastor or revivalist gives it to the congregation. The Christians believe that they are necessarily blessed if the pastor or revivalist pronounces a blessing upon them.

What, then, is the cause of this mistaken concept of blessing? On the one hand, Christians are influenced by Shamanistic blessing. Their minds are obsessed by Shamanism, which only seeks after earthly, material blessing and has not the eschatological view of blessing. Because of this, Giboksinang (belief in such Shamanistic blessing) is spreading into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pastors have laid an excessive emphasis on material blessing in order to promote the growth of their churches, because they saw that the churches which taught that the Christians could become rich if they believed in Jesus, achieved rapid quantitative growth. However, not only pastors but also Christians, are responsible for belief in Shamanistic blessings. While Korea began to experience economic growth after 1960, people came to feel relative poverty on accoun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y went to church because of this structural anxiety and pursued the

Giboksinang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ir realities.

The representative of Giboksinang is Cho, Yonggi, who uses the principle of triple salvation as a criterion for ministry. His triple blessing, which consists of spiritual and material blessing and good health, stimulates the people's appetite. He proclaims that people can succeed in everything, enjoy good health and live a long life in the world, if they believe in Jesus. Also he says that Christians can, indeed must, be blessed with material blessing, and it is almost blasphemy against Jesus Christ for them not to be blessed with material, earthly blessing. His teaching makes the people think of the biblical blessing as being only material blessing.

What, then, is blessing in the Bible? There are the material, earthly aspects of blessing also in the Bible. However, we must view blessing diachronically in the light of soteriology. The blessing which God promised to Abraham is fulfilled in Jesus' works of justification. Therefore, the Bible says that blessing in the New Testament is the redemptive work of Jesus, and Christ is the consumation of the blessing promised to Abraham. The Bible also promises the Kingdom of God as an eschatological blessing to believers. This doesn't refer to the material aspect but the eschatological aspect of blessing. Therefore, the view that the material aspect of blessing is biblical is incorrect.

Hence Korean Christianity must drive out the syncretism of biblical blessing and Shamanistic blessing. It must also reject not only the revival movement for church growth and the Christians' use of offering as a way to gain blessing, but also the pursuit of wealth and the priority of numerical success. First of all, Korean Christianity must re-establish the theology of blessing, for all Christians cannot necessarily attain material wealth or succeed in everything. They sometimes wander through the bitter times of life for the glory of God. Therefore Korean Christianity must teach that blessing in the Bible is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through Jesus' redemptive works. It must also emphasize the eschatological, spiritual aspect of blessing over earthly peace, wealth and good health.

